

블랑팡, 쥐의 해를 맞아 최초의 포슬린 다이얼을 선보이다

블랑팡이 쥐의 해를 맞아 메티에 다르 워크숍에서 온전히 손으로 완성한 포슬린 다이얼 시계를 처음으로 공개한다. 8피스 리미티드 에디션을 이루는 각각 유니크 타임피스로 소개하는 이 특별한 시리즈를 통해 라 브라쉬스 매뉴팩처에서 선보이는 전통 중국 기술을 엿볼 수 있다.

다양한 장식 기법과 고대 수공 예술 기법을 마스터한 장인들을 보유한 르 브라쉬스의 매뉴팩처 블랑팡은 마치 예술 작품을 방불케 하는 시계를 선보이는 데 있어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블랑팡은 워크숍 내에서 새로운 형태의 기법을 통합해 나가며 본연의 노하우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이같은 연장선 상에서 블랑팡은 1년이 넘는 개발과 실험을 거쳐 인하우스에서 디자인하고 제작한 최초의 포슬린 다이얼을 소개할 수 있게 되었다.

오랜 시간 건조하고 굽는 수차례 단계와 과정을 거쳐야 하는 포슬린 다이얼은 뛰어난 손맛과 함께 인내심을 요구한다. 우선 주로 석영, 장식, 카올린으로 구성된 가루 형태의 포슬린을 물에 녹인다. 그리고 그 용액을 체로 거르고 여과해 잔여물과 불순물을 모두 없앤 후 다이얼 모양 틀에 주조한다. 형태를 잡은 다이얼을 24시간 건조한 후 다시 24시간 동안 1000°C에서 굽는다. 화로에서 처음 굽는 이 단계 동안 다이얼이 단단해지면서 에나멜 작업을 위한 채비를 마치게 된다. 이후 각각의 다이얼 위에 손으로 섬세하게 에나멜 작업을 한 후 다시 한번 24시간 동안 1300°C 화덕에서 굽는 과정을 거치며 포슬린이 도자기처럼 변하면서 반짝이고 반투명한 형태로 모양을 잡아간다.

메티에 다르 포슬린 스페셜 에디션은 자기(porcelain) 예술과 에나멜 페인팅을 접목했다. 12간지 중 올해의 띠퉼을 주제로 한 여덟 가지의 유니크 타임피스 각각이 쥐를 형상화하고 있다. 각 쥐의 모습과 각각의 데커레이션은 극도로 정교한 붓을 이용해 자유자재로 그려낸 것이 특징이다. 1,200°C에서 오랜 시간 굽는 과정을 거치면서 포슬린에 컬러가 입혀진다. 골드 베이스 위 에나멜 다이얼에서는 결코 불가능한 온도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컬러와 강렬함이 한 단계 진화할 수 있었다.

메티에 다르 포슬린 워치는 베젤에 48개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33mm 사이즈의 화이트 골드 케이스로 선보인다. 1154 오토매틱 무브먼트를 탑재하고 있으며, 사파이어 케이스백을 통해 무브먼트의 섬세한 피니싱을 감상할 수 있다. 이 아름다운 타임피스에서 악어가죽 스트랩이 완벽한 피니싱의 화룡점정을 찍는다.